

#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 KIA 마운드 방등 '키피레이어' 양현중

### 변화구·완급 조절 '운용의 묘'... 팀 연패 끊어낸 베테랑의 힘 느리지만 멈춤없는 그만의 생존법 '리빙 레전드' 존재의 이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중이 흔들린 선발진 속에서 중심을 잡았다. 화려한 구위보다 경험과 운영이 빛난 경기였다. 양현중은 지난 13일 광주 기아팬피어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3피안타 2사구 4탈삼진 2피홈런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3승째 (3패)다. 팀의 2연패를 끊어낸 의미 있는 호투였다. 이날 양현중은 총 8개의 공을 던졌다. 스트라이크는 52개로 비율은 63%였다. 공격적인 승부투수로 주도권을 가져갔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 평균은 139km 수준이었다. 대신 변화구 활용이 돋보였다. 직구 28개, 슬라이더 26개, 체인지업 25개를 섞으며 두산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슬라이더 평균 구속은 133km, 체인지업은 127km였다. 여기에 커브까지 더하며 단조로운 승부를 피했다. 구속보다 타이밍 싸움이 돋보였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다. 1회 2사 후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페이스를 되찾았다. 2회와 3회를 연속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4회 2사 1, 2루 위기에선 헛스윙 삼진으로 실점을 차단했다. 5-1로 앞선 5회에는 선두 타자에게 다시 솔로 홈런을 맞았다. 그러나 추가 흔들림은 없었다. 이후 세 타자를 삼진, 투수 앞 땅볼, 뜬공으로 처리하며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모습은 아니었다. 대신 제구와 경기 운영, 그리고 경험으로 풀어나갔다. 지금의 양현중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에 가까웠다. 올 시즌 양현중은 이날 경기까지 8경기에서 38.2이닝 평균자책점 4.66, WHIP 1.45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시즌 흐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위 저하의 연장선이었다. 세부 지표도 만족스럽진 않았다. 9이닝당 볼넷은 4.19였다. 피장타율은 0.431, 피OPS는 0.762를 기록했고, 퀄리티스타트도 단 1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이날 투구는 의미가 있었다. KIA는 현재 리그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선발진 안정이 필수다. 최근 10경기 팀 선발 평균자책점은 6점대, 리그 8위 수준이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기대만큼 버텨주지 못했고, 국내 선발진 역시 황동하를 제외하면 기복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양현중이 살아야 한다.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다. 로테이션 중심을 잡아야 하고, 불펜 부담까지 줄여줘야 한다. 베테랑의 이닝 소화도 필요한 이유다. 이날 승리는 화려함과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KIA가 왜 아직도 양현중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주홍철 기자



KIA 양현중이 지난 13일 열린 두산과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광주시청 이재성, AG 200m 티켓 획득

### AG선발전 겸 전국육상선수권 권·고승환 銅·정안성, 남자 400mH 銀

광주시청 이재성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인간게임 남자 200m 출전권을 따냈다. 이재성은 14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인간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64로 가장 먼저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2위는 서민준 (서천군청·20초91), 3위는 고승환 (광주시청·20초92)이 차지했다. 이재성은 전날 준결승을 20초66로 통과한 뒤 이날 결승에서 가장 빠른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를 전 열린 남자 100m에서 3위를 하며 남자 400m계주 대표로 포함됐던 이재성은 이날 200m에서 1위를 달리며 개인종목 출전권까지 거머쥐었다. 이재성은 지난 항저우아시아인간게임에서 100m

와 400m 계주를 뛰었으나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200m와 계주에 나서게 됐다. 준결승에서 20초50으로 1위를 했던 나마다 조엘진 (예천군청)은 결승에서 기권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이재성이 아시아인간게임 개인종목 출전권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개인 최고기록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면서 "아시아인간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남자 400m허들에서는 광주시청 정안성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안성은 51초06을 기록, 김주호 (대구시청·51초56)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3위는 51초15를 기록한 조상현 (목포시청)이 차지했다. 예선을 52초07로 통과한 정안성은 결승 초반



14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인간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이재성(왼쪽)과 동메달 고승환. <광주시육상연맹제공> 선두를 달리다 피니시라인을 앞두고 김주호에 추월을 허용하며 2위에 올랐다. /박희중 기자



수영 2관왕에 오른 김하진(사진 가운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육상 1,500m T20 중등부에서 1-3위를 차지한 전남선수단.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 수영 김하진 '2관왕'·육상 국사랑·황다연 '3관왕'

광주·전남, 무더기 다관왕 '순항'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선수단이 무더기 다관왕을 배출하며 '금빛 순항'을 이어갔다. 광주선수단은 육상, 수영, 조정, 축구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를 추가하며 본격적인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지난 대회 여자 200m, 400m T20 고등부 2관왕 이가는 (광주선명학교 3)이 200m에서 '그 실력 그대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15일 400m에 출전하는 이가는은 2년 연속 2관왕에 도전한다. 이어 열린 남자 멀리뛰기 T20 초등부에서 임성민 (금호초 6)이 은메달, 정경은 (계수초 5)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대회 첫날 여자 자유형 100m S14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하진 (광산중 3)이 2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에 올랐고, 전지민 (우산중 2)은 여자 평영 50m S14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조정에서는 박하을 (봉주초 6)이 남자 500m 타임레이스 PR3-ID 중등부 은메달, 강남준 (대촌중앙초 5)이 남자 500m 타임레이스 PR3-ID 초등부 동메달, 임대현 (광주전자공고 2)이 남자 1,000m 타임레이스 PR3-ID 고등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선수단은 육상에서 금메달이 쏟아졌다. 국사랑 (소림학교 1)은 여자 800m T20 중등부 금메달, 여자 400m 릴레이 T20 중등부 금메달에 이어 이날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황다연 (함평

영화학교 3)도 여자 800m T20 고등부 금메달, 여자 400m 릴레이 T20 고등부 금메달에 이어 1,500m T20 고등부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남자 200m T13 고등부에 출전한 윤하민 (은광학교 1)도 30초1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첫날 100m에 이어 2관왕에 올랐고, 여자 100m T11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노현희·이지아 (은광학교 3)도 이날 200m T11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특히 전남선수단은 이날 여자 1,500m T20 중등부에서 국사랑의 금메달에 이어 강유림 (덕수학교 2)이 은메달, 김상은 (순천선혜학교 3)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시상대에 나란히 서는 감동을 선사했다. /박희중 기자

## '전국 최초'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지원 공모

## 육군보병학교, 전갑수 체육회장 표창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 최초로 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보병학교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14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육군보병학교 장 직무대리로부터 민·군 체육 교류 활성화와 군 전투체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사진) 이 자리에서 광주시체육회는 국가 안보 확립과정에 장병 양성에 헌신하며 민·군 합동 교류와 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권 육군보병학교장 직무대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023년 육군보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스포츠과학 기반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군 체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1공수특전여단과도 협약을 맺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스포츠과학을 통한 실질적인 가치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갑수 회장은 "광주시체육회와 육군보병학



교과 체육과 스포츠과학을 매개로 상호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군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과학 기반의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5급 3특 체제의 균형발전과 민·군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맞는 체육 정책들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상대는 인천, 첫 승 감동 다시 한번"

### 광주FC, 내일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 총력전

프로축구 광주FC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와 '하나는행 K리그 2026'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1승 4무 9패 (승점 7)로 리그 최하위로 추락한 광주는 지난 9일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 구단 최다 8연패를 끊고 값진 승점을 추가했지만 12일 FC서울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반등하지 못했다. 무기력하게 점수를 내주며 흔들렸던 수비 조직력 회복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무더진 공격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선제골을 기록한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었던 만큼, 회복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초반 기선 제압이 인천전에서 중요한 승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인천은 올 시즌 광주에게 유일한 승리를 안

겨준 팀이다. 광주는 지난 3월7일 홈 개막전에서 신창무의 멀티골을 앞세워 3대2 승리를 거뒀다. 광주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 후련을 발휘해 전반기를 승리로 마무리해 후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부담 없는 일정 속에서 선수단 역시 총력전을 준비하며 강한 투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인천 공격의 핵심인 무고사가 부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광주에는 긍정적인 요소이나, 여전히 제르소와 페리어를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경계 대상이다. 또한, 광주는 인천 원정에서 최근 리그 5연속 무승(3무 2패)으로 고전했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광주가 올 시즌 첫 승의 제물이었던 인천을 상대로 2연승과 함께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올 시즌 K리그1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일정에 따라 15라운드 (16-17일)를 마친 후 7월 초까지 휴식기에 들어간다. /박희중 기자